

## 제 20 장

### 천국에 들어가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 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총만케 하려 하심이니라(엡 4 : 8~10).

우리 주님의 삶에는 다음과 같은 8가지 위대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 (1) 하늘 나라에 선재하셨던 영원한 그의 성육신 이전 시기.
- (2) 이 지상에 강림하심, 즉 처녀 탄생에 의한 출생하심.
- (3) 능력있는 그의 사역.
- (4)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음.
- (5) 그의 부활하심.
- (6) 하늘로 승천하심.
- (7) 승리의 왕으로서의 재림하심.
- (8) 하늘과 땅에서의 영원한 통치하심.

이러한 8가지 전환점 가운데서 그의 지상 강림과 하늘 나라 -하늘 중에서도 하늘, 세번째 하늘-에로의 승천은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와 비슷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하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첫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있는 곳을 가리킵니

다. 두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영역이며 은하수와 별들이 빛을 내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늘 중의 하늘인 세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히 거하는 장소이며,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승천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1)우리는 그 승천을 지상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습니다. (2)천사들은 그 승천을 하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3)구약성경의 성도들은 약속 안에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4)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성경의 교회가 교회의 신랑을 영접한다는 관점에서 승천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 우리가 땅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승천

우리는 베드로전서 1:20과 요한계시록 13:8에서 우리의 주님이 이 세계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에서 천국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타락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시기는 근원적인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지( fore-knowledge )로 인하여 루시퍼의 타락과 인류 최초의 조상의 타락과 이 세계의 절망과 황폐함을 아셨습니다. 하늘에서 발생한 사단의 반역과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는 공허하게 되었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시신을 매장하게 될 엄청난 공동 묘지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땅은 지금까지 고뇌로 인하여 신음하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락의 와중에서 타락한 인류에게 원시 복음( *protevangelium* ) 즉, “그 복음 이전의 어떠한 복음”이 타락한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 3:15).

그 여인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파괴하여 깨뜨릴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서 신실성을 가지고 구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그분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는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으로부터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아와 셈의 후손으로부터 나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계열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가문에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들은 그분이 수행하게 될 그의 통치의 아름다움과 소중함과 위로와 구원과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은 어떤 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말씀과 행위의 사역을 행하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 후에 하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9).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주님의 승천을 이 땅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천사들이 하늘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승천

우리는 결코 추측조차 해 볼 수 없는 그렇게 머나먼 과거에, 루시퍼의 반역이 발생했을 때,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사단을 따르게 되었습니다(계 12:4). 그러나 나머지 삼분의 이는 참되고 신실한 무리이었습니다. 사단의 반역으로 인하여 하늘에 있는 천

사들의 삼분의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12은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다스리는 영광의 왕이시며, 선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께서는 마리아라는 한 처녀의 자궁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한 명의 인간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주님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크나큰 놀라움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μυστήριον)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딤후 3:16).

천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그것을 철저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을 때,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찬양과 영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타락한 인류의 구원과 파괴되고 황폐하게 된 이 세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시련을 당하실 때에 그분을 도우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겹세마네에 계실 때 그를 위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무덤가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하셨을 때, 그분을 쳐다 보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도들에게 천사들은 그들이 이미 영광 가운데서 영접한 그 동일하신 주님께서 어떤 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의 주님을 그때에 바라보았고, 그분을 하늘 나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의 왕이시며 대장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영광 가

운데서 승리하여, 다시 하늘 나라로 돌아 오실 때에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할 것일지를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 성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우리는 시편 24편의 예언 가운데서 그러한 장면을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7,8절).

성경은 우리 주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도발한 사단의 지배에 있는 권세를 가진 무리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골 2 : 15).

이 본문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 잡고”(엡 4 : 8)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정복한 사단은 우리 주님의 전차 바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사단은 지금 이빨과 독침이 빠져버린 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 사단은 이미 패배하였고 무너졌으며, 정복을 당한 원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실 때, 천사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킨 그 사단을 정복하신 분으로서 위대하신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안으로 죄를 가져온 자이며, 이 우주와 우리의 세계를 파괴하였고 끝내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온 인류를 죽음으로 둘러싼 장본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 만의 천사들의 무리들이 부르는 찬송과 찬양 가운데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실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겠습니까!

바로 이 구절을 보십시오. “그가 위로 올라 가실 때에 사로 잡힌 자를 사로 잡고.” 그분을 포로로 잡았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사로 잡힌 바 되었고, 이로 인하여 죄와 죽음도 사단과 함께 주님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무덤에 매장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의 속박과 구속을 산산조각 내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애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적들 즉 죄와 죽음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따르는 슬픔과 그 모든 상처들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시며 위대하신 창조자로서 그 하늘 나라에 들어 가셨습니다. 면류관을 쓰신 왕이시며, 선재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며, 그 천사들의 대장이신 우리의 사랑하시는 구세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돌아 오실 때, 그 천사들이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약속 안에서 기다렸던 승천

우리는 주님이 변화하신 모습에 관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새(눅 9 : 29~31).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영어 번역으로 읽는 것 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리스도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언에 따라서 성취하시게(πληρώω, 플레로오)될 예수님의 별세(ἔξοδος,

엑소도스 : “탈출”을 뜻하기도 하며,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다 — 역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죽어서 지낸 모든 사람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휴거를 받아서 승천하게 될 사람을 대표하며, 이 사람들은 눈깜박할 순간에 변화되어 질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별세(ἔξοδος, 엑소도스)에 대하여 우리 주님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이러한 별세(ἔξοδος, 엑소도스)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그 일을 기록한 성경의 두번째 책을 출애굽기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위대한 탈출(ἔξοδος, 출애굽기)에 관하여 말을 해주는데, 그것은 죽음과 부패의 속박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위대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죽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에게로 모두 다 모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서 그의 조상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솔로몬도 이 모든 구약성경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조상에게로 모여서 우리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대속의 마련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천국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대속하시는 죽음 때문입니다. 그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광 안에서 우리를 그 본향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운명은 예루살렘에서 당신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시게 될 그 대속의 죽음, 그 거

룩한 목표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그분을 천국으로 영접할 때에 그들의 기쁨과 황홀감 그리고 그 즐거움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죽음과 그리고 무덤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자이며, 구원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천국으로 다시 되돌아 오실 때에 구약성경의 성도들 가운데는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도 같이 있습니다! 회개의 설교를 외친 노아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의 마음을 두고 있던 아브라함도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수금을 치고 있는 다윗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위로의 예언을 전하였던 이사야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네 명의 케루빔과 함께 있는 에스겔도 그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사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도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고요함과 확신을 지니고 있었던 스가랴도 있습니다. 날개 안에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의로움의 아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는 말라기도 그곳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성도들이 그들의 위대하신 구원자 그리고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입니까!

### 신약성경의 교회들이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는 승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처음 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받으시는 영접을 인간의 언어가 도저히 잘 묘사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속받은 자들과

네 명의 케루빔과 스물 네 명의 장로들(구약의 열둘, 신약의 열둘, 즉 족장들과 사도들을 가리킨다)이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때, 그러한 장면은 인간의 언어가 묘사할 수 있는 범주를 초월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다시 되돌아 오실 때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의 영원하신 존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9~11).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땅과 그 영광도 모두다 그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분이 구속하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의한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교회가 그들의 구세주이시며, 그들의 주님이신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까!

어느날 나는 매우 큰 강당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어떤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여러 종교들의 훌륭한 지도자를 초청하자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각 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에게 그 강당에서 매일 저녁마다 두 사람씩 자신들의 신앙을 제시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주었고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그 커다란 강당이 수 천 명으로 가득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루 밤에는 신도와 힌두교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날 밤에는 이슬람교와 유대교의 대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밤에는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표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제시하였습니다. 불교 신앙을 제시하는 그 대표자는 매우 충명하였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곳에 모인 청중들에게 매우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불교의 대표자는 불교 생활에서 수행하는 모든 훈련과 명상, 그리고 열반에 대해서 그 청중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말하는 대표자는 불교의 대표자를 뒤이어서 자신의 신앙을 제시하게 되었는데, 그사람은 앞의 사람과 달리 말을 잘 하지 못하여 더듬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은 효과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매우 서투르고 어설피게 제시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서투른 말 솜씨로 계속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위층에 있는 발코니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 면류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그러자 다른 장소에 앉아 있던 어떤 사람이 또 일어나서 그 찬양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잊을 죄인아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네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그러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복자입니다. 그는 선재해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육신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덤과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높고도 장엄한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에게로 돌아 오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황폐한 세계의 재창조자이시며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흠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상속자로 삼으시는 특권을 주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믿음의 권속 안에서 우리를 형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시키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